



새벽에 꿈을 꾸는 아이

현대청운고 1-5 김서준

띠리리링~ 띠리리링~

“으!”

아침부터 울리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소리치는 듯한 알람을 끄고 밤새 하던 게임을 종료하기 위해 컴퓨터를 끈다. 대충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방에서 막 나온 엄마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나에게 소리쳤다.

“니 또 밤새 게임했지? 아이고,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아침부터 그런 피곤한 얼굴인 게 정상이니? 정신 좀 차려라.”

또, 시작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패턴, 그럼에도 나는 나의 진심을 전하고자

“엄마!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야!” 역시 엄마는 소리치며 나의 말을 끊었다.

‘될 거예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괜찮다. 이것 역시 익숙한 패턴이었으니까...

화를 내는 엄마를 뒤로하고 어찌저찌 힘들게 걸어 학교에 도착했다. 반에 들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가방을 대충 책상 옆에 걸고 나는 자리

에 앉아 바로 눈을 감았다. 나에게 학교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반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은 경멸, 또는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 두 가지뿐이었다. 남에겐 하루의 시작일지 모르는 아침의 학교, 하지만 나에게서는 잠을 자야만 하는 밤이었다.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공부 시간보다는 게임에 대한 분석과 연습이 필요하기에 내가 선택한 것은 새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아니, 새벽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의 표현일 뿐, 나는 내 꿈을 위해 새벽으로 나아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학기 초, 선생님과 상담, 그때도 그랬다. 학교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자던 나는 학교의 문제야로 찍혀 있었고 결국 선생님이 나를 불러 꾸짖으며 화를 냈다.

“도대체 계속 자는 이유가 뭐니?? 프로게이머? 그게 쉬운 줄 알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그게 니 살길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상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났던 것 같다. 선생님께 아무리 이유를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답변, 또는 ‘프로게이머가 쉬운 줄 알아?’, ‘학교 끝나고 잠깐 게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새벽까지 해!!’라는 말뿐. 하지만 선생님, 그거 아시나요? 쉽지 않은 걸 알기에, 잠깐 해서! 대충 해서! 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을! 이런 나의 각오를 아무도 몰라주지만, 상관없다. 내가 얼마나 프로게이머라는 그 꿈에 진심인지, 내가 알고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프로게이머에 진심인 이유는 2년 전, 중2 그때의 일이었다.

중2의 나는 그저 하루를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학생이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노는 그저 그런 학생. 그랬던 나에게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야! 게임 경기 티켓 2장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뭐, 할 것도 없었고 게임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한번 가보는 생각으로 게임 경기장에 갔었다. 게임 경기장은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컸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거의 만 명은 되겠다! 와! 사람 진짜 많아!”

내가 신기해하자 친구가 말했다.

“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구. 대단하지?”

경기가 시작한 후 사람들의 환호성, 응원 등은 생각보다 너무나 웅장하고 즐거웠지만 그날 나의 마음이 주목했던 건, 아니 주목되었던 건 경기가 끝난 후 승리한 선수들의 표정이었다. 포호를 하는 선수, 활짝 웃는 선수,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 3만 명의 관중의 환호성 중앙에서 그들의 표정은 제각기였지만 그들의 눈은… 그래,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뭘까? 기쁨? 행복?’

아니, 아마 그런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감정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날 나는 곧장 다짐해 버리고 말았다. 내가 저 감정을 꼭 느껴보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어쨌든 이런 생활을 나는 계속 지속했다. 그렇게 고1 겨울방학을 맞이했고 부모님과와의 싸움은 부지기수였기에 솔직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고2가 된 개학식

날, 나는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

그날도 역시 학교에 가자마자 눈을 감았다. 평소에는 아무도 나를 깨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누가 날 깨우길래 보니 익숙지 않은 얼굴이었다. 대충 상황을 보니, 다른 학교에서 온 새로운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았다. ‘귀찮아지겠네’라고 생각하며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각오와는 다르게 선생님은 편안한 목소리로 나에게 질문했다.

“혹시 잠을 자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 않는 선생님은 처음이었기에 신기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선생님과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했다. 나는 역시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마 부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선생님은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각오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있나?”

몇 번이고 각오했기에 저 질문에 대한 답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물론, 각오했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다면 밀어주는 게 선생님의 도리겠지.”

어? 이렇게 쉽게 승낙하실 줄은 몰랐기에 질문했다.

“더 묻지 않으시는 겁니까?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래.”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뒤로 선생님이 한 말은 아직도 내 뇌리에 각인돼 있다.

“네 눈이 빛나고 있거든!”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건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울

였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건 그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뿐이었지만 나에게겐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더 큰 각오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믿어준 그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나에게 물었다.

“남들이 꿈을 꾸는 새벽에 일어나 있는 기분은 어떤가? 하하.”

“선생님, 그게 아니죠.” 내가 대답하자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그래 너는!”

내가 말했다.

“네, 저도 그들이 꿈을 꾸는 그 시간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빛나는 두 눈을 뜬 채로.”

